

# 공항(AIRPORT)

## ■ 공항의 역할

우리나라의 항공법에서는 비행장을 비행기의 이,착륙을 위하여 사용되는 육지나 물위로 규정하고(항공법 2조 4항), 그 종류를 육상(땅위)비행장, 육상 헬리포트(헬리콥터용 비행장), 수상(물위)비행장, 수상헬리포트(수상 헬리콥터용 비행장)로 구분하고 있다. 공항이 갖추어야 할 시설로는 비행기를 안전하게 이,착륙시키는 데 필요한 착륙대(着陸帶), 활주로, 유도로(誘導路), 주기장(駐機場), 격납고(정비, 수리, 점검용), 비행장 표지시설, 이,착륙 보조항법시설, 기상 및 관제 시설, 급유시설, 소방시설, 구급시설 등이 있다. 공항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하는데 필요한 시설로는 여행자의 탑승 및 통과, 화물의 탑재 도착 통과 등을 취급하는 시설과 여객안내시설(대합실 표지판 등), 여행자의 항공기 탑승시설, 항공사의 여객 및 화물 카운터, 화물적재시설, 보세창고, CIQ 경비보안시설 등이 있으며, 부수적으로 필요한 시설로는 여객과 환송객, 견학자 또는 공항근무자를 위한 숙박시설 식당 은행 우체국 매점 및 버스나 택시 등 교통수단을 위한 주차장 시설 등이 있다. 급속한 발전속도를 보이고 있는 항공업계에서는 새로운 기술이 생겨나는 속도가 빨라서 1969년에는 정보제트기(좌석수 340 ~ 550석)가, 1976년에는 영국과 프랑스가 공동으로 개발한 콩코드(146석)가 비행을 시작하는 등, 하늘의 대량 고속 수송시대를 맞이하였다. 한편, 각국의 경제발전과 국제교류의 증대에 따라 비행기의 여행자나 물건의 수송량이 많아지고, 앞으로는 더욱 많아지리라 생각된다. 이와 같은 하늘의 대량 고속 수송시대에 맞춰서 현재 각국의 주요 공항은 기능정비와 첨단시설을 갖추고 있다. 대형 제트여객기가 비행을 시작함에 따라 1대의 비행기당 여행자수가 종래의 제트여객기에 비해 평균 약 3배로 늘어났기 때문에 출발 도착 때 혼잡이 생기지 않도록 공항내의 설비를 보다 사용하기 편리하게 만들어야 했으며, 이를 위해 워킹벨트 로딩브리지 등이 도입되었으며, 대규모의 주차설비도 갖추게 되었다. 또한 항공화물의 수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화물전용터미널이 일반화하였고, 컨테이너화가 뛰어나짐에 따라 원래는 손으로 하는 작업이 중심이었던 화물처리가 기계화되었으며, 항공화물 컨테이너 야드도 설치되고 있다. 이와 함께 이미 주요 공항과 도심 사이에는 고속도로가 일반화되어 있으나, 많은 차들이 다님으로 해서 차가 막히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으며, 이런 현상은 앞으로 더욱 심해질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또 항공기의 고속화로 인해 도심과 공항 사이의 움직이는 시간의 단축이 반드시 필요하게 되었으므로 원래의 고속도로에 더 많은 철도 지하철도 늘리고 있는 중이다.

## ■ 전국의 공항

### ▲ 인천국제공항

인천국제 공항은 인천 중구 운서동 2172-1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1992년 11월 착공하여, 2001년 3월 29일 개항하였다. 부지면적은 5만 6202km<sup>2</sup>(1,700만 평), 여객 터미널은 49.59km<sup>2</sup>(15만 평)이며, 관제탑 높이는 100.4m, 활주로 길이 3.75km, 너비 60m, 두께

105cm(2개), 활주로 간격은 414m 이다. 21세기 수도권 항공운송의 수요를 분담하고 동북아 비즈니스 및 물류거점화를 위한 동북아시아의 허브(Hub)공항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 영종도와 용유도 사이를 매립하여 1992년 착공하여 8년 4개월 만에 총공사비 7조 8,000여억원이 투입되어 2001년 3월 개항하였다. 1992~2000년까지 8년간의 제1단계 공사가 완성되어, 연간 17만 회의 항공기 운항을 통해 2,700만 명의 여객과 170만 t의 화물을 수송하게 되었다. 시설은 여객터미널, 화물터미널, 계류장시설, 항행안전시설, 교통시설 등으로 구분된다. 여객터미널은 체크인 카운터가 270개, 여권심사대 120개, 보안검색대 28개, 출발여객 처리용량은 시간당 6,400명이다. 화물터미널은 항공기 24대를 동시에 세울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연간 화물처리능력은 170만 t이다. 계류장 시설은 33만 평으로 60대를 동시에 계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2단계 건설 사업은 2002년 착수하여 2008년 완공 예정이다.

#### ▲ 김포 국제 공항

김포국제공항은 서울시 강서구 과해동 274번지에 위치해 있다. 1939년 당시에 경기도 김포군 양서면 방화리에 일본군이 활주로를 건설하면서 공항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이 후 미 공군이 사용하면서 민간항공기 운항이 허용되고, 1954년부터 우리나라도 일부 사용할 수 있었다. 그 후 1958년이 되어서야 대통령령으로 김포국제공항으로 지정되면서 1971년 본격적으로 공항의 모습을 갖추기 시작하였다. 국내 공항의 양형으로 그 자리를 굳건히 지켜온 김포공항은 현재 공항뿐 아니라 '스카이 시티'라는 복합문화, 레저, 쇼핑공간으로 공항 이용객들에게 또 다른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다고 한다.

#### ▲ 김해 국제 공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2동에 위치한 김해공항은 1958년 8월 부산 수영비행장을 최초로 개설, 1963년 9월 부산국제공항으로 승격되었다. 공항시설 확장을 위하여 1976년 8월 현 위치로 이전 김해국제공항으로 개칭하였다. 김해국제공항은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을 거듭하여 연간 917만명의 여객이 이용하고 있으며, 이용객들을 위한 여행 편의시설과 장애인 이용객의 편의 시설도 점차적으로 확충해 나가고 있다. 안전한 공항을 만들기 위해 항공기 이 착륙에 필요한 첨단 통신, 전자장비 등을 설치하여 최상의 조건에서 운항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 ▲ 제주 국제 공항

제주국제공항은 제주도 제주시 용담2동 2002번지에 위치해 있으며, 동북아의 중앙부에 자리 잡아 중국, 일본, 동남아를 연결하는 중요한 지정학적 위치에 있다. 제주도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섬으로 9개의 유인도, 54개의 무인도와 함께 행정구역상 가장 작은 도를 구성하고 있다. 한국 신혼여행의 메카이며 대학생들의 대표 졸업여행지인 제주도의 가장 큰 관문 제주국제공항은 오늘도 관광객들의 발길로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다.

#### ▲ 대구 국제 공항

대구국제공항은 대구광역시 동구 지저동에 위치해 있으며, 경상도 중심부에 있는 이 곳은 입지적으로나 기능적으로 전국을 쉽게 연계 할 수 있어 대구, 경북의 유일한 국제 교류 중심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경산, 영천 등 대구 인근 지역은 30분 이내로 접근 가능하며 경주, 안동, 포항 등 경북 관광명소는 90분 이내로 접근이 가능하여 영남권 거점 공항으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리고 대구는 경부선, 대구선등의 철도와 경부 고속도로, 88올림픽 고속도로-구마 고속도로, 중앙 고속도로가 교차하는 영남 내륙등의 요충지로서 종합무역센터, 종합유통단지 및 물류단지 등이 들어섬에 따라 명실상부한 경상남북도 무역과 물류의 중심이 되고 있다.

#### ▲ 광주 국제 공항

광주국제공항은 1948년 11월 광주시 학동에 광주비행장이 개설되어 이듬해인 1949. 2월 민항기가 처음으로 취항하였다. 1946년 1월 광주시 광산구 신촌동으로 이전하였으며 본격적인 여객수송을 위하여 여객청사, 유도로 및 계류장 등 시설확장을 꾸준히 시행하여 공항으로서의 면모를 갖추어 나갔다. 1994년도에는 연 14만회 운항과 4백만 명을 처리할 수 있는 여객청사, 3.3만톤을 처리 할 수 있는 화물터미널과 중형기 7대가 동시에 주기 할 수 있는 계류장, 8백20대 동시 주차가 가능한 주차장 등 현대화 및 확장으로 한반도 서남부의 항공교통의 중추적 역할을 다하고 있다.

#### ▲ 청주 국제 공항

청주국제공항은 충청북도 청원군 북일면 입상리에 위치해 있으며, 1978년 9월 공군 비행장으로 개항한 이후 1984년 국제공항 건설 계획이 결정되어 1996년 12월 공사를 완공, 1997년 4월 28일 청주국제공항이라는 명칭으로 개항하였다. 중부권 거점공항인 청주국제공항은 김포공항으로부터 165km, 인천공항으로부터 250km, 군산공항으로부터 120km 떨어진 국토의 내륙 중심부의 위치하고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갖추고 있다. 청주국제공항은 연간 국내선에 1백 23만 명, 국제선에 1백15만 명을 수용할 수 있으며, 자동차 7백70대를 수용할 수 있으며, 자동차 7백 70대를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항공기 운항횟수는 연간 19만 6000회가 가능하다고 한다. 현재 국내선 제주 노선과, 국제선은 상해, 심양, 카오슝, 타이페이를 운항하고 있다.

#### ▲ 양양 국제 공항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에 자리 잡은 양양국제공항은 영동지역에 하나밖에 없는 국제공항이다. 설악산과 동해를 어우르는 한국의 대표적 휴양지인 영동권의 거점 공항이자 강원도 관광의 항공관문으로써 그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고 있으며, 영동지역 관광안내 및 관광교통서비스 제공의 중심지로 다양한 관광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양양국제공항 국내선은 김포와 김해국제공항을, 국제선은 대만과 상해를 운항하고 있다.

#### ▲ 울산 공항

울산광역시 북구 송정도에 자리 잡은 울산공항은 1970년 11월 울산비행장으로 개항하여 울산-서울간 정기노선이 개설되었다. 1973년 휴항하고 1974년 비행장이 폐쇄되었으나 1984년 다시 정기노선이 되었다. 1992년 3월 아시아나항공(주)이 울산~서울간 노선을 개설하였고, 1993년 2월 대한항공(주)이 울산~제주간 노선을 개설하였으며, 1993년 5월에는 아시아나항공(주)이 울산~제주간 노선에 취항하였다. 1997년 12월 여객터미널을 증축하였으며, 연간 6만 회 항공기 운항이 가능하며 여객처리 규모는 연간 2백30만명, 주차장은 5백34대를 수용할 수 있다.

#### ▲ 여수 공항

여수는 남해안의 수려한 경관과 다양한 수산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충무공의 충절이 깃든 호국 문화 유적을 보유한 호국충절의 도시이기도 하다. 서울~여수간 운항은 1시간, 제주~여수간 비행시간은 45분 소요된다. 1972년 서울~여수간 대한항공 취항을 시작으로 1977년 여수~제주간 정기노선이 추가되었으며, 1992년 아시아나 항공이 서울~여수간 노선을 취항했다.

#### ▲ 목포 공항

목포공항은 목포시청에서 남동쪽으로 22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다. 1969년에 건설되어 운항을 시작, 1992년 7월에 대한항공, 1992년 12월 아시아나항공의 목포~서울 노선이 개설되었고, 1993년 대한항공의 목포~제주, 1994년 10월 목포~부산 노선이 개설되었으나 2001년 10월 15일부터 중단되었고 2003년 4월 이후에는 아시아나항공의 목포~서울 2편, 대한항공의 목포~제주 1편만 운행하고 있다. 목포공항은 그동안 지역주민의 많은 사랑 속에 운영돼 왔으나, 증가하는 여객수요를 감안해 대체공항으로 건설 중인 무안국제공항이 개항되면서 역사의 뒀안길로 사라지게 되었다.

#### ▲ 사천 공항

사천공항은 경상남도 사천시 사천읍 구암리에 위치해 있으며, 진주 시청과 약 20km 떨어진 곳에 있다. 인근에 지리산과 한려해상국립공원이 있으며 진주공항이라고도 부른다. 1969년 11월 대한항공(주)이 취항하였고, 1973년 8월 민항시설 공사로 인하여 휴항한 뒤 1975년 2월 대한항공(주)이 재 취항하였으며, 1977년 8월 진주~제주간 노선이 마련되었고 1992년 4월에는 아시아나항공(주)이 진주~서울간 노선에 취항하였다. 연간 1만 6500회의 항공기 운항이 가능하며, 여객은 135만명을 수용할 수 있으며, 300대 동시 주차가 가능하며 현재 서울과 제주 노선이 운항 중에 있다.

#### ▲ 포항 공항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동해면 도구리에 위치한 포항공항은 포항시청에서 약 6.5km, 포항제철에서 구룡포 방향으로 5km 떨어진 곳에 있다. 2002년 6월 새롭게 단장한 포항공항은 그간 비좁은 정사 생활을 마감하고 넓은 주차장과 다양한 부대시설로 이용객들에게 새로운 활력을 주고 있

다. 1970년 2월 비행장이 설치되었으며, 같은 해 3월 대한항공(주)이 포항~서울간 노선을 개설하였으며, 1992년에는 아시아나항공(주)이 4월 포항~서울간, 10월 포항~제주간 노선을 개설하였다. 항공기 운항 횟수는 연간 10만회 정도 가능하고, 국내선 승객 187만명을 수용할 수 있으며 주차장은 530대를 수용할 수 있다.

#### ▲ 군산 공항

군산시 옥서면 선연리에 위치한 군산공항은 1970년 8월 우리나라 산업발전과 함께 미군비행장에 개항해 서울편이 운항되다가 1974년 3월 오일쇼크 때 석유 절감 차원에서 중단되었다.

1992년 12월 미군 기지 옆에 현재의 군산공항이 개항돼 서울~김포 노선 및 제주 노선을 운항하며, 연간 최고 45만 7천명의 이용객을 기록하기도 했다. 근래 승객 감소로 아쉽게도 김포 노선이 2002년 5월 이후로 운항이 중단되었다. 군산공항은 1992년에 지어진 단층청사로 연 38만명의 승객들이 이용할 수 있으며, 여객청사 바깥으로는 차량 316대가 동시에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을 확보하고 있다.

#### ▲ 원주 공항

강원도 횡성군 횡성을 국교리에 위치한 원주공항은 1975년 횡성 군 비행장으로 개항하면서 그 역사가 시작되었다. 1993년 1월부터 민항 개항을 추진하여 1995년 11월 공사를 시작, 1997년 2월 개항하고 대한항공(주)이 취항했다. 항공기 운항횟수는 연간 11만 5천회 가능하며 여객은 연간 45만명을 수용할 수 있다. 계류장에는 B737급 항공기 1대가 머무를 수 있고 주차장은 동시에 90대를 수용할 수 있다. 현재 원주~제주간 항공편이 운항되고 있으며, 제주 노선의 수요가 점차 늘어남에 따라 운항편수 확대를 검토 중에 있다고 한다.

### ■ 각국의 공항 코드

항공권을 발권하고 목적지란을 보면 세 글자의 영문 약어로 표시되어 있다. 항공권뿐만 아니라 수하물을 부칠 때 부착하는 꼬리표(baggage claim tag)에도 표기되어 있고, 공항 곳곳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것이 도착점의 공항 코드인데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곳도 있고 애매한 곳도 있다. 더불어 우리나라 항공사뿐만 아니라 외국항공사의 항공기를 이용할 경우도 있을 텐데 이것은 두 글자 혹은 세 글자의 약어로 표시된다. IATA(국제항공운송협회)는 두 글자, ICAO(국제민간항공기구)는 세 글자로 표기한다. 항공사 직원은 물론 해외여행이 잦은 이들도 이제 웬만한 항공사나 공항 코드 정도는 쉽게 읽어내지만 이 세 글자에 익숙해지는 것이 그리 만만한 일이 아니다. 단어가 아닌 알파벳을 이용한 기호이기 때문에 쉽게 외워질 리가 없다. 하지만 그 알파벳과 해당공항과의 연관성을 조금 생각해보면 그렇게 막연한 것만도 아니다. 도쿄를 가려고 항공권을 발권하고 목적지 표기란을 들여다보니 '도쿄(TOKYO)' 라고 표기한 옆에 'NRT' 라는 생소한 세 개의 영문자가 보인다. 목적지를 의미하는 것 같기는 한데 영어사전에 나오는 단어도 아니고 그저 의미 없는 알파벳 조합이라 낯설기 그지없다. 그 세 글자는 도쿄의 '나리타(Narita)공항' 공항을 의미하는 코드이

다. 비슷한 원리로 'JFK'는 뉴욕의 존 에프 케네디 국제공항을 의미하지만 워싱턴 덜레스공항(IAD)이나 일본 오사카 간사이공항(KIX)같은 경우는 추리가 불가능하다. 이러한 코드는 사실 공항에만 붙이는 것이 아니다. 국제항공운송협회(IATA)는 공항코드와 함께 세계 각국의 주요 도시들에도 세 글자의 알파벳 코드를 부여해서 항공사들과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다. 대개 도시코드와 공항코드를 같이 쓰는 것이 보편적이다. 싱가포르의 도시코드는 'SIN', 싱가포르 창이국제공항의 코드도 'SIN'으로 서로 동일하다. 하지만 미국의 대도시들처럼 그 도시권내에 공항이 다수 위치한 경우에는 도시코드와 공항코드가 동일할 수 없다. 뉴욕시(NYC)에 있는 JFK국제공항(JFK)과 뉴어크공항(EWR), 라구나디아공항(LGA)처럼 도시와 공항의 코드를 각각 다르게 사용한다. 오사카(OSA)시와 오사카 간사이공항(KIX)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국내 지방공항들도 각기 공항코드를 가지고 있다. 인천신공항(ICN), 김포(GMP), 제주(CJU), 부산(PUS), 대구(TAE), 광주(KWJ), 목포(MPK), 속초(SHO), 예천(YEC), 울산(USN), 원주(WJU), 여수(RSU) 정도면 외우기 쉽지만, 진주(HIN)나 포항(KPO), 군산(KUV), 강릉(KAG), 청주(CJJ) 등은 사전에 알고 있는 것이 편리할 것이다.

▲ 국내 공항코드

CODE	도시	도시(국가)
ICN	Incheon	인천
GMP	Seoul	서울
PUS	Pusan	부산
CJU	Cheju	제주
USN	Ulsan	울산
RSU	Yosu	여수
TAE	Taegu	대구
KWJ	Kwangju	광주
HIN	Chinju	진주
KPO	Pohang	포항
MPK	Mokpo	목포
KUV	Kunsan	군산
YEC	Yecheon	예천
WJU	Wonju	원주
CJJ	Cheongju	청주
YNY	Yangyang	양양
SSN	Seongnam	성남(서울공항)

▲ 국외 공항코드

CODE	도시	도시(국가)
AKL	Auckland	오클랜드(뉴질랜드)
ALA	Almaty	알마티(카자흐스탄)
AMS	Amsterdam	암스텔담(네델란드)
ANC	Anchorage	앵커리지(미국)
AOJ	Aomori	아오모리(일본)
ATH	Athens	아테네(그리스)
ATL	Atlanta	아틀란타(미국)
AUH	Abu Dhabi	아부다비(아랍에미리트)
BAH	Bahrain	바레인(바레인)
BCN	Barcelona	바르셀로나(스페인)
BER	Berlin	베를린(독일)
BGW	Bagdad	바그다드(이라크)
BJS	Beijing	북경(중국)
BKI	Kota kinabalu	코타키나발루(말레이시아)
BKK	Bangkok	방콕(태국)
BNE	Brisbane	브리스베인(오스트레일리아)
BOM	Bombay	봄베이(인도)
BOS	Boston	보스톤(미국)
BRU	Brussels	브뤼셀(벨지움)
BSL	Basel	바젤(스위스)
BTK	Bratsk	브라트스크(러시아)
CAI	Cairo	카이로(이집트)
CAN	Guangzhou	광저우(중국)
CCU	Calcutta	캘커타(인도)
CDG	Charles de gaulle	파리(드골공항, 프랑스)
CHC	Christchurch	크라이스트 처치(뉴질랜드)
CHI	Chicago	시카고(미국)
CGK	Soekarno hatta	자카르타수하르토공항(인도네시아)
CGQ	Changchun	장춘(중국)
CMB	Colombo	콜롬보(스리랑카)
CPH	Copenhagen	코펜하겐(덴마크)
CTS	Chitose	삿포로공항(일본)

■ 참고 자료 출처

- <http://kac.airport.co.kr> 한국공항공사  
[www.skynews.co.kr](http://www.skynews.co.kr) 대한항공 발행 스카이뉴스  
[www.wasco.co.kr](http://www.wasco.co.kr) 월간항공  
[www.kas.co.kr](http://www.kas.co.kr) 한국공항